

9년만에 다시 보는 ‘오방색의 향연’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5월 30일까지 ‘오승운전’

2008년 이후 첫 광주 전시

미공개작 ‘꽃’ 등

유족들 소장 12점 내내

‘꽃과 풍수’...봄맞이 특별전



故 오승운 화백

3월에 들어섰지만 아직 찬바람이 부는 2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는 화사한 봄기운이 완연했다. 꽃과 나비가 정겹게 어우러지는 고(故) 오승운(1939~2006) 화백의 작품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꽃과 풍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로터스갤러리가 봄을 맞아 마련한 특별전으로 3일부터 5월30일까지 진행된다.

오 화백은 오방색을 활용해 한국적 토속 정서를 아가자기한 조형언어로 풀어낸 작가다. 우리나라 인상주의 화가 대가인 오지호 화백의 셋째 아들로, 아버지, 형 오승우 화백과 함께 한국화단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1974년에는 전남대 예술대학 장설을 주도하고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기도 했다.

전시는 유족이 소장한 ‘풍수’ 시리즈와 꽃을 소재로 한 12점을 선별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지난 2008년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오승운’전에서 작품을 공개한 이래 10년여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전시로, 유족들은 출품작 중 절반 이상을 미공개작으로 채우는 정성을 다했다.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부인 이상실 여사, 자녀 오수경, 오병재, 오병희(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씨를 비롯해 지난해 5월 10주기 추모전을 기획해 화제를 끌었던 외손녀 박지운양이 참석, 오 화백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이상실 여사는 “현재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유작들은 이동할 때 마다 조금씩 훼손되기 때문에 전시를 자주 열지 못한다”며 “이번 전시는 몇년간 무각사의 끊임없는 요청과 평소 불교를 예술정신 밑바탕으로 삼았던 오 화백의 유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과 함께 둘러본 작품들에서는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순수함이 먼저 느껴진다. 그리 크지 않은 갤러리 규모를 감안해 20호 내외 작품을 주로 출품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관람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작품은 처음 공개하는 ‘꽃’(2005)이다. 노란 배경에 분홍·빨강·하양 꽃

세송이가 자리잡고 있다. 끈게 뺨은 줄기와 잎파리, 주변을 장식한 구름형상은 색채와 모양을 달리해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다.

또 갤러리 이름과 같은 검은색 바탕 ‘蓮’(Lotus) 작품에서는 오 화백을 대표하는 동물인 물고기, 오리 등이 보인다. 평소 주변 풍경을 작품에 옮겼던 만큼 오 화백이 바라본 자연을 엿볼 수 있다. 박지운양이 “할아버지가 물고기 뺨에 점을 그려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하던 작품이다. 또 상대적으로 곱팡이가 쉽게 피는 검은 배경이라 가장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풀, 산, 하늘, 바람, 별, 구름 등을 통해 자연 섭리를 말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같은 소재, 같은 주제로 작업했지만 제작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서울에서 전업작가로 활동 중인 오병재씨는 “작품 활동이 힘들 때마다 평생 전업작가로 사셨던 아버지는 어떻게 힘든 환경을 극복하셨는지 생각한다”며 “작품 대표 이미지를 매번 변화시키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고민하는 예술가로서의 모습은 큰 가르침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번 전시에 숨겨진 의미도 있다. 파리 등 유럽에서 공부하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본 오 화백은 우리나라 절에 서양화를 그려넣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 실제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원호사의 한 방을 서양화로 꾸미는 작업을 추진했다. 계획이 틀어져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꿈 일부를 무각사에서 대신 이뤘다.

유족들은 “언젠가는 체계적으로 작품을 관리하고 상설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 건립을 꿈꾸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600호 대작 ‘바람과 물의 역사’(2004)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 개막식은 3일 오후 6시다. 문의 062-383-00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꽃’



▼‘풍수’

권승찬 작가 모교 장흥 회덕중에 작품 5점 기증

2일 오전 설렘 가득한 얼굴들이 보이는 장흥 회덕중학교 입학식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 학교 출신 권승찬(7회) 미디어아티스트가 30년 만에 모교를 방문해 ‘자취의 현재사’ 시리즈 중 ‘크리스마스의 추억’ 3점과 ‘배부른 돼지들’ 2점 등 총 5점을 기증했다. 작품들은 급식실 입구와 학교 계단 사이에 설치돼 학생들과 만난다.

이번 기증은 지난해 말 열린 총동창회가 인연이 됐다. 당시 안전권 동창회장이 권 작가에게 후배들을 위한 작품 기부의 의견을 꺼냈고 평소 모교를 위한 방안을 생각하던 권 작가는 기꺼이 동의했다. 이날 기증식에서 권 작가는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술가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며 호응을 받았다. 또 앞으로 진로의 날 등에서 현대미술강의를 약속했다.

권 작가는 “오래간만에 학교에 오니 학생들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며 “후배들이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개인과 사회 관계를 표현한 작품을 통해 앞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온숙 교장은 “교내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화가와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동기부여와 자극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일 장흥 회덕중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권승찬(오른쪽 두번째) 작가가 기증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회덕중 제공>

박효은 첼로 독주회 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박효은 첼로 독주회가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대를 거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독일 아헨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박씨는 스페인,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각지에서 초청연주회 등을 갖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쳤다. 귀국 후 솔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실내악 연주자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박씨는 현재 광주대, 전남예고에 출강하고 있다. 아르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앙상블 마주얼 단원, 연주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브루흐의 쿨 니드라이, 베토벤의 ‘첼로소나타 4번 C장조’, 슈만의 ‘첼로 유폐트’를 위한 콘체르토 작품 129’ 등이다.

이번 연주회 반주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현일씨가 맡았으며 특히 마지막 곡인 ‘첼로 유폐트’는 첼리스트 이후성(광주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정아름(아시아 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조은혜(앙상블 브레이마 단원)씨가 함께 연주한다.

전석 티켓 가격 2만원(학생 할인 50%). 문의 010-4301-19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대학 뒤 공단형선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에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사랑받는 미술관, 사랑받는 그들만의 컬렉션

- 광주·전남 26개 미술관, 문화공동체의 구심점
- 사반세기 나이에 그린 광주시립미술관
- 사랑받는 미술관들의 공통점, 매력적인 그들만의 컬렉션

남도 시간 속을 걷다①

82년의 세월이 얹은 보성여관에서 부용산의 슬픔, 태백산맥의 서사에 젖는다

소년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②

꿈으로 배우는 예술교육 제공 파리 퐁피두센터

노중돈의 꿈의 여행③

건축의 혁신과 예술적 품위 스페인 발렌시아

예왕이 만난 이 사람

광주U대회 노하우 'U어드바이저' 출간 김윤석, 배미경
나무 주판알 만드는 주판 달인 김춘열
FA '100억' 대어 기아타이거즈 와야수 최형우

예왕 초대석

봄처럼 따뜻한 위로의 시인, 김용택

“시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줘요”

대한민국 식물명인④

귀한 약재 ‘복령’과 정성으로 빚은 건강 떡 복령조화고 명인 김영숙

문화 화제

문인 배출의 든든한 터, 생오지 문예창작촌

배극남의 대중문화X파일⑤

소설테이너와 폴리테이너를 바라보는 시선

박성천 기자의 문화읽기⑥

‘한국소설이 좋아서’ 50권 선정 전자서평집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⑦

문학과 중국의 뜨거운 품은 정홍 화신향

아트 뉴스 & 리뷰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기념 정명화, 손열음, 신지아 트리오 광주 공연

트렌드 따라잡기⑧

무모해도 좋아, 행복하니가 ‘So, yolo’

남도 특집

강진

다산과 영랑시, 질투를 타고 강진만 안팎 원탄불고기백반 갈낙탕 등 ‘전라도의 맛’ 노트엔마랑수신사상 국가어항 전자책